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 포토보이스를 중심으로*

The Meaning of ‘Tim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Photovoice Research Method

1차원고접수: 2023.07.10. 수정원고접수: 2023.08.28. 최종게재결정: 2023.09.15.

윤정진¹ · 임홍남² · 정수정³¹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²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³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Youn, Jeongjin¹Im, Hongnam²Jeong, Sujeong³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ngmyong University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won University³Dep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포토보이스 연구를 실시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Latz(2018)가 제시한 절차를 변형하여 파악, 모집, 교육, 기록, 서술, 발표, 관념화, 확증의 단계를 거쳤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B시에 소재한 D대학의 대학생들로, 연구 동의를 구한 80명 중 자발적 의사 동의를 밝힌 42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6월 ~ 8월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9월 ~ 22년 3월까지 자료분석이 이루어졌고, 이후 자료 검증과 논문 작성 기간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에 대해 첫째, 나를 느끼게 하는 선물 같은 현재의 시간, 둘째, 경험의 총체로 차곡차곡 쌓인 축적의 시간, 셋째, 달라지는 변화의 시간, 넷째,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의 시간, 다섯째, 앞으로 채워갈 여백의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넘어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어줌으로써, 대학생들이 건강하게 시간을 체험하며 보낼 수 있는 대학생들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시간, 포토보이스, 대학생, 대학교육

Abstract In this study, a photovoice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ime’ that university students think. The photovoice research method modified the procedure presented by Latz(2018) and went through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recruitment, education, recording, description, presentation, ideation, and confirm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university students at DUniversity located in Bcity, and 42 of the 80 participants who asked for consent for the study were finally selected participants through consent. In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21,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21 to March 2022, followed by data verification and a thesis writing period. As a result of this study,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about the meaning of time through five concepts: The present time like a gift that makes me feel, The time of accumulation accumulated one by one as the totality of experiences, The time of change that changes, The time of unstoppable flow, The time of blank space to be filled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attitude of life beyond the meaning of time that university students think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university life and education that university students can experience and spend time in a healthy way.

Keywords time, photovoice research method,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취준생(취업준비생)’이라는 용어는 대학생 고학년부터 그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의 청년들을 일컫는 말로 최근 우리 사회에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는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청년 취업률은 낮아진 반면,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며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더 많은 스펙을 쌓는 데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현상을 대변한다. 이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61.3%가 자신을 시간빈곤층이라고 답하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간인물, 2015; 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4093387).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Corresponding to 임홍남 (Im, Hongnam)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won University) E-mail. abcd1841@hanmail.net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정, 김정섭, 2017).

이때 시간빈곤이란 무엇인가. 노혜진(2017)은 시간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둘째,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상태 즉, 장시간 노동 상태인 경우를 시간빈곤이라고 보는 방법, 셋째, 스스로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방법, 넷째, 시간 빈곤을 단순히 시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빈곤과의 관계라는 상충 관계로 살펴보는 방법 등이 그 설명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시간빈곤층’이라는 표현에는 시간에 대한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적 측면에서는, 시간이 빈곤하다는 표현이 절대적 시간의 부족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본인이 해결해야 할 과업을 수행해 감에 있어 하루 24 시간이라는 시간의 양이 부족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이때 의미하는 시간은 흔히 표현하는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기간, 찰나 등의 객관적으로 수량화된 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체험된 시간의 질이 빈곤함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시간의 부족과 삶의 질을 연결하여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아하는 시간들로 가득 찬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도 삶의 질이 높지만, 원하지 않는 시간들로 가득 찬 경우에는 체험한 시간의 질이 떨어지므로 낮은 삶의 질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시간빈곤층은 체험된 시간의 질적 빈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대학생들은 현재 절대적 시간의 부족을 느낌과 동시에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와 같이 대학생들은 여유가 없는 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서

경현의 연구(2012)에서 대학생이 성인보다 행복감 수준과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행복한 대학 시절을 위한 사회적, 교육적 차원의 고민을 촉구하게 한다. 특히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체험된 시간의 양과 질에 대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의 질을 느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이는 체험된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체험된 시간의 양적 측면은, 동일한 시간 내에서도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빠르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연결된다. 절대적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체험적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체험된 시간의 질적 측면에서는, 체험된 시간의 경험의 질이라 할 수 있는 행복이나 시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등과 연결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객관적·물리적 시간에 대한 관점에서 주체의 체험된 시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이래, 여러 학자들이 체험된 시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칸트, 훗설 등에 이어지면서 시간은 지각의 양태로서의 시간 혹은 내적 자아의 통일성의 조건으로 시간을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양미경, 1999). 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시간에 대해 통속적 시간과 본래적 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통속적 시간은 일상에서 이해하는 모든 시간, 시계, 날짜 등 명확하게 자료화 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본래적 시간은 인간 현존재의 특별한 존재 양식을 통해 그때 그때 시간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경희, 2011). 같은 맥락에서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과거와 미래의 구별도 없으며, 각 개별은 공통의 지금을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시간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Davies, 1997).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간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느끼고 혹은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이루어 가게 되는 무엇이다. 나아가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된 것이 다시 곧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간은 경험의 총체들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사용하던 초·중·고등학생의 시절을 지나 스스로 시간을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대학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대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의 시간을 계획하고 할애할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현재의 시간을 보내는 주체이다. 이에 이상준(2021)은 대학생의 시기를 후기 청소년기로서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단계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간을 구성하고 운용해 나갈 때, 미래 준비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선행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대학생과 시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대학생의 시간 관리와 진로준비에 대한 연구들(김정섭, 2022; 안이경, 김상규, 김우리, 김민규, 2020; 조성진, 2014; 조혜리, 곽진우, 홍아정, 2022)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외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시간을 미래 준비의 시기로 보는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시간 중 '미래' 시간관에 주목하여 성장이나 준비도를 연구(김다영, 김정섭, 박윤희, 2023; 심정미, 김정섭, 2020; 정은교, 안도희, 201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학생의 시간 관리와 삶의 질을 연결하여 살펴보는 연구들(김외숙, 박은정, 2015; 심경보, 곽성원, 2019; 이춘엽, 박영주, 2022)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시간에 대한 대학생들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윤정, 김정섭, 2017; 함영애, 2018)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최근까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시간과 연결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유롭게 시간을 구성하게 된 대학생들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특히 이러한 시간 관리의 결과가 미래 준비나 취업준비와 연결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준비로 인해 대학생들이 시간에 대

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서 발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전술한 바, 대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과 맞물리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짚어보면, 이미 주어진 절대적 시간 안에서 대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와 같은 시간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 관리의 결과와 미래 취업준비를 연결 지으며 준비한 시간만이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하기에 오히려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시간빈곤증'이라는 표현으로 대변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시간 유형이나 시간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결과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대학생들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대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학생들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실험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 사진을 통해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다(Amanda, 2017). 이채림(2019)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참여 과정에서 기록하는 사진 속 이미지들은 메시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자기표현의 수단 및 전달 매개체로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숨겨져 있더라도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가치관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포토보이스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바를 사진을 통해 기록화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인식하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포토보이스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이미지화 한 장면을 묘사할 뿐 아니라, 체험된 시간의 의미를 시각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재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는 포토보이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포토보이스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2021년 1학기에 B시에 소재한 D 대학의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융합’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영화로 만나는 창의적 융합’이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영화를 본 후 그와 관련한 주제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였다. 수업 중 학생들은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고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토론하게 되었고, 이때 ‘시간’에 대한 포토보이스 활동도 실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토론을 들은 강의자와 공동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강좌가 끝나고 방학이 된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수업의 마지막 날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수업 시간에 ‘시간’의 의미에 대해 포토보이스를 진행한 활동의 의미를 짚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을 학생들에게 밝히고,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이메일을 통해 해당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며 작성한 포토보이스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에 따라 수업을 수강한 학생 80명 중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포토보이스를 작성하여 보내준 학생 42명이 최종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본 수업은 교양강좌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학과나 연령, 성별 등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인식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N = 42)

항목	분류	인원	비율
성별	남	20	47.6
	여	22	52.4
학년	1	8	19.0
	2	15	35.7
	3	13	31.0
	4	6	14.3
총합		42	100

2. 포토보이스 방법

포토보이스 연구는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자기의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한다(임정아, 진영선, 2017; Dumbrell, 2009). 이에 모호한 개념이나 본인에게 의미화되었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포토보이스를 활용해 보면, 개인의 이야기나 생각을 이미지화하여 담아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의미화를 묻는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탐

색해 보고자 포토보이스 연구법을 활용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Latz(2018)의 포토보이스 연구 절차에 기반하되 수정·간략화하여 적용하였다. Latz(2018)는 포토보이스 연구 절차를 파악, 모집, 교육, 기록, 서술, 관념화, 발표, 확증이라는 8단계로 설명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연구주제와 연구참여자를 파악하는 파악단계와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모집단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연구방법을 설명하는 교육 단계를 거쳤다. 특히 교육단계에서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실시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포토보이스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포토보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할 때 '시간'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순간이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긴 후, 왜 그 사진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함께 사진과의 연결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생각하는 시간의 이미지를 현재 상황에서 사진으로 남기기 어려운 경우,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와 가장 닮아 있는 이미지를 찾아 기재하여도 되며 그럴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포토보이스 기재 양식은 포토보이스 선행연구(권오정, 2020; 김정주, 김병만, 정수정, 2020)를 참고하고, 포토보이스 선행연구를 수행해 본 연구자 1인과 교양 교육 교수자 1인의 검토를 받아서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포토보이스 작성 양식은 총 2장으로 첫 장은 참여동의서를 통해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안전 폐기, 연구참여의 위험과 이득, 연구 참여 중단 및 철회권 보장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학생의 성별과 학년, 이름,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락처와 이름을 받은 이유는 연구참여에 대한 사례를 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이 또한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학생들이 포토보이스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을 제시하였다. 포토보이스를 작성한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메일로 회신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대학생들이 포토보이스를 작성하도록 안내된 양식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포토보이스 작성 양식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기록단계, 연구참여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단계를 거쳤다. 그 외 변형된 방법으로는 발표와 관념화 단계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시간'에 대한 포토보이스를 정리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발표단계를 거쳤다. 그 이후, 자료수집된 포토보이스 내용들을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해석 및 분석하고 분류화하는 관념화단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치며 확증 단계를 수행하였다. 관념화단계와 확증단계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의 장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먼저 포토보이스 작성 양식을 개발하고 검토를 받아서 완료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2021년 4월 ~ 5월 동안 이루어졌다. 개발된 포토보이스 작성 양식은 5월에 안내되어 학생들이 5월 마지막 주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기말 수업 시간인 6월 중순에 학생들에게 지난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연구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시간’의 의미에 대한 포토보이스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포토보이스 양식을 재배포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 포토보이스 연구방법과 자료 제출 방법, 연구참여시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그 외 연구참여 의사는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으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실제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 기간을 정하게 된 근거는 이 기간이 학기말 성적이 모두 처리된 이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구참여가 수강강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본 기간을 선정하게 되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의 온라인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였으며, 포토보이스 작성을 위해 한글파일이 필요할 학생들을 위해 사전에 파일을 공유한 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간에 대한 포토보이스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자료로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일정은 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

자료수집이 끝난 후, 연구자들은 수집한 자료를 인쇄하여 문서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방형 코딩 방식으로 분석하였다(김영천, 2016).

먼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와 구절에 표시하였다. 특히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사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토보이스 방법은 그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설명 외에도 연구참여자가 설명으로 모두 드러내지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한 내용들은 다시 읽어보며 각 범주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도출하여 1차 코딩하였다. 1차 코딩 결과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시간이 가진 특성에 기초하여 시간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차 코딩된 내용들을 범주별로 묶어 다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며, 내용 간에 의미가 교차하는지 점검하였으며, 의미가 교차되거나 모호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표시한 후, 재유목화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차이들로 시간을 의미화하기보다 시간에서 개별이 느끼는 의미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시간의 특성인 ‘흐름’에 포함되어 범주 내용 간의 중첩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차 코딩 과정에서는 1차 코딩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범주화 중 유사한 범주를 합치고 새로 유목화함으로써 최종 2차 코딩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2. 자료수집 일정

순서	기간	일정내용
1	2021. 05. 03 ~ 05. 28	포토보이스 작성 자료 개발
2	2021. 06. 16	연구목적 및 방법 등 안내
3	2021. 07. 01 ~ 08. 31	자료수집
4	2021. 09. 01 ~ 2022. 02. 28	자료분석 및 해석
5	2022. 03. 01 ~ 2022. 05. 31	결과 자료 검증
6	2022. 06. 01 ~ 2023. 07. 10	논문 작성

3차 코딩 과정에서는 2차 코딩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범주화된 내용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재구성하는 심층 코딩을 실시하였다. 2차 코딩 결과 도출된 범주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본 내용들은 2차 범주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되지만, 단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서로 중첩되고 얹혀있는 내용들을 아우르며 각 범주마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유목화가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경험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제시한 포토보이스 설명에는 기억, 추억이나 과거와 연관되는 지점이 있었으며, 변화나 차이는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차 코딩으로 분류되어 있던 자료들의 내용을 재검토해 보며, 특징 키워드뿐 아니라 내용상의 주요 방향점을 중심으로 재유목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정 및 통합된 2차 코딩 범주화 유형들을 엮어서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 결과를 도출하였다.

범주 결과 제목은 자료수집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 중 본 범주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엮어 결과 제목으로 도출하였다. 결과 범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연구 결과를 유목화함에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전문가 1인과 교양교육 강의 및 연구자 1인, 인간발달 전공 전문가 1인에게 영역범주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으며, 해당 연구참여자 중 성실히 답변한 3인에게 메일을 보내 연구 결과 및 영역범

주에 대한 구성원검토 의견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나를 느끼게 하는 선물 같은 현재의 시간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모두 포함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은 현재이다. 그렇다 보니 대학생들이 시간을 인식하거나 느끼는 것도 현재의 경험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에 대해 현재 자신이 '시간'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삶에서 시간을 가장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찍힌 현 시간입니다.

표 3. 연구 결과 범주화 과정

과정	범주 유형	
1차 과정	과거	과거, 경험, 기억, 추억, 차이 등
	현재	현재, 순간, 즐거움 등
	미래	기대, 채워가는 것, 노력 등
	시간 특성	변화, 차이, 흐름, 붙잡을 수 없음
2차 과정	시간의 의미	경험, 기억, 추억, 차이, 순간, 즐거움, 채워가는 것, 기대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특성	변화, 차이, 흐름, 붙잡을 수 없음
3차 과정	나를 느끼게 하는 선물 같은 현재의 시간	
	경험의 총체로 차곡차곡 쌓인 축적의 시간	
	달라지는 변화의 시간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의 시간	
	앞으로 채워갈 여백의 시간	

시간은 유한하며 지금 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현재 이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를 생각하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가 없으면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미래의 나를 만들고 내 행동들을 돌아보며 지금의 ‘나’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의 시간을 통해 살아가며 지금의 순간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학년, 여, 임학생-



밤에 떠 있는 달이 나의 삶에서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오전 오후는 일상을 지내기 바빠서 나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없는데 집 가는 길이나 밤에 걸을 때 하늘을 봤을 때 달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내 시간을 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1학년, 여, 고학생-



나에게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친구들과 놀고먹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따로 없다. 즐거움을 느낄 때, 내가 현재의 시간을 즐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1학년, 남, 김학생-

대학생들은 ‘시간’을 떠올릴 때, 지금이라는 현재가 생각난다고 하였다. 현재는 내가 존재하는 시간이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며, 현재의 순간이 과거가 되고, 과거이자 현재의 순간이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대학생들은 답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무수한 시간의 연속 안에 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운위한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들도 존재한다. 가령 책임이나 의무에 의한 일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경우 등이다. 그 경우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보다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여기거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은 일상을 보내는 동안은 자신의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서 ‘시간’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내었다. 즉 일상을 보내는 동안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시간을 느끼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구성된 시간 속에서 행위하기에 시간을 보낸다기보다 ‘행위’에 목적이 있어 시간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노혜진(2017)이 시간 빈곤의 의미를 정리한 내용 중 스스로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연결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일상을 보낸 이후 여유로울 때 즉, 다른 시간에 비해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한 시간에서 자신을 느끼며 그 순간인 시간을 느끼고 그때가 오롯이 자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들은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라고 답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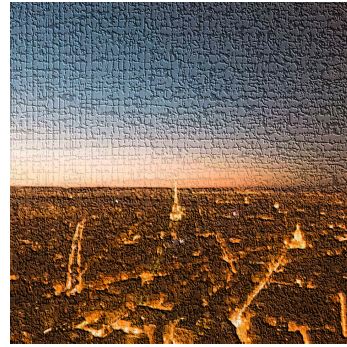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을 느낀다고 생각한 대학생들과 같은 맥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순간이라는 시간을 즐기며 시간을 느끼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이 어진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함에 있어 무엇보다 자신이 느낀 '시간'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계속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중 자신이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며 즐길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흘러가던 '시간'을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시간을 즐긴다는 것은 '현재'라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며,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학생들은 현재의 시간, 그중에서도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그 시간들은 현재이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을 느끼게 하는 순간으로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관련하여 틱낫한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더없이 새로운 24시간을 선물을 받는다고 하며, 우리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하였다(Nhāt Hanh, 2015). 따라서 이는 현재에 대한 영어 표현이 present이며, 이것이 선물의 영어 표현과 동일한 기표를 가지는 것에 주목해 보게 한다. 즉 대학생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 자신을 느낌과 동시에 현재라는 그 순간이라는 시간을 느끼며 이를 포토보이스로 포착하여 시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2. 경험의 총체로 차곡차곡 쌓인 축적의 시간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관용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시간은 흐르며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진다. 지금이라는 현재는 잠시 후 과거가 된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게 남게 되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을 떠올릴 때 본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포토보이스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제가 16년도 당시 유럽으로 혼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중 가장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이때 같이 게스트 하우스에 있던 사람들과 이 위치에서 사진도 찍고 하이퍼랩스로 해가 지는 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선정한 이유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제 삶의 방향과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곳도 유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진로, 꿈, 미래의 나의 모습, 모두 유럽에서 영감을 받았습시다. 현재 저는 유럽에서 제 삶의 시계를 재작동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학년, 남, 박학생-



나는 나의 삶에서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장면으로 이 사진을 뽑고 싶다. 첫 번째 이유로는 나의 과거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자랐기도 하고, 이 사진이 바다를 보러 갔다가 찍은 사진이라 제주인 나를 표현하는 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 뽑게 되었다. 또, 엄마랑 처음으로 단둘이 놀러 간 때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단둘이 돌아다니고, 밥을 먹기도 하고, 내가 운전을 해보기도 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처음이었던 날이기도 해서 엄마와의 시간을 표현한다 생각해 뽑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내 삶에서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 드는 장면으로 이 사진을 뽑았다.

-1학년, 여, 진학생-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시간’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그때의 순간이 본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자 의미화된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은 그에게 기억이 될 만큼 그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남은 것이며 그렇기에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학생들은 흘러간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그 시간들이 모여 현재의 자신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 자신이 나고 자라며 자신의 추억이 깃든 곳은 곧 자신을 대변하는 공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며 나의 가치관과 습관 등에 녹아들고 그것이 나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대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이며, 이때의 기억들은 자신을 이루는 경험이자 자신이 지나온 시간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포토보이스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시간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포토보이스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시간을 경험함에 따라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이 남게 된다. 과거의 시간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해된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를 물음에 있어 시간에 담긴 그만의 의미였던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더욱이 대학생들은 기억 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순간을 포토보이스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와 같은 과거의 순간들이 경험의 총체로 현재의 나를 이루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시간과 존재에 대해 이해한 베르그송의 관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베르그송은 주체가 주변 물질(타자)과의 상호 침투 과정에서 끊임없이 창조 진화해 가는 존재로서의 생명론을 펼치는데, 이때 생명이 지속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에 녹아들었던 타자와의 관계와 경험들은 그의 역사성이 되어 끊임없이 창조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을 확정해 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베르그송에게 과거는 생리적 현재 속에 자신을 보존하며 현재는 새로운 미래를 끊임없이 열어 놓게 된다고 보았다(문창욱, 200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은 다양한 ‘기억’이자 경험의 총체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답하며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순간을 포토보이스로 기록하고 있었다.

3. 달라지는 변화의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시계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시계는 흘러가는 시간을 임의로 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숫자라는 표기로 가시화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시간이라 할 수 없다. 단지 시간이 흘렀음을 은연중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나무가 싹이 나고 푸르렀다가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일련의 과정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은 변화를 통해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오로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했던 건 당연하지 않은 채로, 당연하지 않았던 건 당연한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나를 볼 수 있고 쉽게 차이를 알 수 있다. 어릴 적 사진은 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시절의 물건과 유행품도 찾을 수 있기에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 사진을 찍어 준 부모님도 사진의 외적인 부분이지만 훌쩍 자란 나를 보며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학년, 여, 박학생-



이 사진들이 내가 시간을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유도라는 운동을 처음으로 배웠을 때가 작년 6월쯤이었는데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나고 흰 띠에서 검은 띠를 띤것을 보면 '시간'

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었던 나의 유도 실력, 처음엔 다 그렇듯이 형편없지만 저는 남들보단 더 뒤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실력도 점차 늘다 보니 유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긴 것 같고 이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배울 때가 시간을 나타내기에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1학년, 남, 이학생-

사람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장하거나 늙는다. 이는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련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간의 의미를 여기에 주목한 대학생들은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오로지 과거와 지금의 자신의 차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특히 이때 대학생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성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들은 그 성장에 있어 정신적인 성장과 물리적인 성장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신의 실력과 같은 성장도 나타내고 있었다. 성장은 점점 자라서 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지남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에 특히 물리적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와도 같다. 그로 인해 물리적 성장에 따른 모습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대학생들이 제시한 정신적 성장이나 실력의 성장은 가시적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제시한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차이'를 만들며 성장이 뜻하는 바와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했던 것들이 변하게 됨을 제시하며 시간은 곧 변화와도 같다고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보면, 시간을 변화라고 의미화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포토보이스 결과는 시간으로 비롯되는 결과에 중점을 둔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바, 시간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를 고민하며, 차

이를 드러내는 변화가 곧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이때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장자(莊者)는 어제 탁자에 기대앉아 있는 사람과 오늘 탁자에 기대앉아 있는 사람은 같지 않다고 제시한 바 있다(전호근, 2015). 즉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외양이라 하더라도 잠시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전의 그와 차이를 가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간관을 두고 도가의 시간 해석은 변화 중심의 시간관을 가진다고 제시되기도 한다. 도가에서는 일체만물이 변화하는 시간 가운데 있으며 시간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간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김선영, 2021). 이로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자 차이는 그 폭에 있어 명백히 드러나는 차이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은 조금일지라도 어김없이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 ‘시간’은 그 자체로 가시화가 어렵지만, 변화가 곧 시간이 흘렀음을 가시화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줌에 따라 우리는 시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 속에서 시간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시간은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아 포토보이스로 제시하고 있었다.

4.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의 시간

시간이라는 단어 뒤에 따르는 동사들을 정리해 보면 ‘(지나)간다’, ‘흐른다’, ‘멈춘 듯하다’ 등의 표현을 쓰게 된다.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시간은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니 멈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멈추는 듯하다고 표현할 뿐 멈춘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에 대해 흐르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사진출처: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vpZ9X5If6ag>

이 사진은 꺾적사진인데 움직이는 것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 한 장 속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그 사람들의 시간이 이 사진 한 장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이 포착된 이 사진을 통해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다려 달라고 해도 혼자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남, 윤학생-



이 사진은 제가 몇 주 전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창덕궁을 들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항상 교과서나 티비에서만 보던 창덕궁을 본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창덕궁의 넓고 웅장하고 아름다움에 저는 금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더욱 감상하기

위해 가까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많은 수리와 보존으로 많이 깔끔한 상태이지만, 그 세월을 지나면서 생긴 나무의 틈, 먼지, 기와의 깨짐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보기 싫고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마치 송해 선생님과 이순재 선생님을 보듯이 노련미와 온화한 풍채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우리에게 노화와 죽음을 주지만 다른 아름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돌아가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꿈이자 숙제이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데로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남, 허학생-

대학생들은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며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사례의 윤학생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에 흐르는 시간을 포착하게 된 사진 속의 궤적이 시간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이미지라고 제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 궤적이 드러내는 것은 포착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시간의 유동성일 것이다. 즉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지나가는 시간의 특성을 윤학생은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이 붙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쫓아가야 한다고 답하고 있었으며, 이에 더해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흐르는 시간의 끝에 앞서 제시한 성장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죽음도 다다르게 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기록의 축적이 쌓인 시간의 흔적은 오히려 아름다움을 남기기도 함을 느끼며 대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을 기꺼이 즐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 결과는 시간이 지나는 특성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시간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느낌은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가 '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도 이어진다(국립국어원, 1999). 대학생들이 시간의 의미를 설명하며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게 된 것에는 한편으로 붙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의 허학생이 시간을 돌이키거나 멈추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흔히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길 바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허학생이 말한 것과 같이 노화와 죽음과도 이어지는 길을 생각하게 될 때는 그 의미가 짙어진다. 이러한 관점은 베르그송이 시간관을 드러냄에 있어 '지속'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속의 본질이 흐른다는 것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Bergson, 1993). 그러나 한편으로 대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긍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들뢰즈의 시간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는 생명이 주체도 대상도 없이 무한히 변이하고, 공간이나 시간도 없이 즉자적으로 변이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명의 살아있음과 죽음이 순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그 자체에서 현재가 사라지고(죽음) 미래의 사태가 현재로 도래하고 변이되며 또 다른 죽음과 생의 현재를 반복-지속하게 된다고 보았다(최승현,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흐르는 지속 중에 노화된 모습은 이전까지의 지속을 안은 새로운 양태로서 아름다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며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흐름에 개인이 맞추어야 하고, 그 흐르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시간의 지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의 특성이 드러나는 결과이지만, 그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포토보이스라고 할 수 있다.

5. 앞으로 채워갈 여백의 시간

초·중·고등학생 때, 시간표를 그림으로 작성한다면 원형에 동일한 간격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그 사이 공간을 할 일들로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은, 시각들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의 의미를 채워 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나의 삶에서 시간은 마치 계단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나가면 힘들지만 다 해내면 성취감이 있기에 계단이라고 생각한다. 계단을 하나 하나 오르는 것이 시간이라면 계단을 모두 올랐을 때 미래의 ‘나’라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 계단 끝까지 올라가려면 모든 계단을 지나가야 가능하다. 시간은 계단을 오르듯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1학년, 여, 박학생-



얼마 전, 나의 20번째 생일날의 사진이다. 이 사

진이 나의 삶에서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20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삶을 살아온 증거가 케이크에 꽂힌 긴 초 2개가 나타내고 있다. 1년에 1번씩 초의 개수가 바뀌고, 초의 길이가 바뀌었는데 이젠 어느덧 긴 초 2개가 꽂히게 되었다. 이렇게 저 사진을 통해 나의 시간의 흐름을 알 수도 있었지만, 저 순간에 촛불을 끌 때에 그 전과는 달리 감회가 새로웠었다. 20년이라는 시간 중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며 그동안의 삶을 잠깐 되돌아보았었다.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삶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다.

-1학년, 여, 조학생-



길은 걸어갈수록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다르다. 길의 끝은 없으며 다듬어지지 않은 길로도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누군가가 다듬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누군가가 다듬어 온 길을 걸어가는 것 모두 시간과 같지 않을까. 나의 삶에서 과거는 내가 다듬어 온 길이며 또 나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다듬어 온 길이다. 나의 삶에서 미래는 그 누구도 다듬지 않은 길이며 그 길을 밟으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 길은 시간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며 향할 수 있는 방향도 정말 많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시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은 길이다.

-1학년, 여, 김학생-

대학생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의 기억 총체가 미래의 나를 이룬다는 점에서 시간은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계단의 축적이나 생일 초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이미지들은 흘러온 시간들의 축적이자 그들이 채워나갔던 시간들의 축적일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시간이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앞으로의 시간 역시 채워나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함에 따라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채워나가는 시간의 양태에 따라 계단을 어디까지 오를지, 어느 길로 가게 될지가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 것이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 결과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은 한자로 '時間'이다. 이를 풀어보자면 어떤 때(時)의 사이(間)이다. 이에 또 다른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국립국어원, 1999). 즉 시간은 찰나의 순간들의 이어짐이자 지속이며, 다가올 찰나의 순간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빈 공간과도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와 타자의 행위에 의해 채워지며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며 지속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하이데거는 시간 속에서 현상하는 생기를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시간 속에서 지속해서 현상을 거듭하는 존재가 역사성을 가능케 해주는 운명적 사건에 가까운 것이므로 시간이란 존재 의미로서의 시간이고, 우리는 시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써 가능한 사건을 체험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이경희, 2011). 이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시간이 시각 사이의 빈 공간이라는 본질을 짚어낸 결과이자, 그 빈 순간을 존재의 사건으로 채워나가며 역사성을 거듭한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하게 하는 하이데거의 시간관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때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 결과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채워

나가는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의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자신의 길을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대학생들의 통찰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미래의 시간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대를 엿보게 하는 포토보이스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현재 '나'를 느끼게 하는 선물 같은 순간을 즐기며 시간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경험의 총체로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간이라고 보았다. 또 대학생들은 변화를 통해 차이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시간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할 여백을 시간으로 느끼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즐기며, 자신을 느끼는 순간을 현재라고 느끼는 것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통해 채워가야 하는 것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시간관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들이 짧은 순간일지라도 현재를 즐긴다고 답하거나 시간의 여백을 채워나가는 주체적인 접근으로 답하고 있는 점은 이전의 선행연구(월간인물, 2015; 윤정, 김정섭, 2017)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시간빈곤층이라고 여겼던 결과와 대비되는 결과라고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도 미래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듯, 본 연구 결과의 연구참여자들 스스로를 시간빈곤층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에 바탕하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에 더욱 주목하여 현재의 삶과 시간을 긍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 결과의 대학생들도 하루 24시간 중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통제할 수 있는 그 적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즐기고자 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바쁜 와중에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통제하여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태도는,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갓생(GOD生)’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혜진(2017)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당면한 시간의 문제는 시간빈곤이 시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빈곤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즉 시간 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대학생들은 학생 신분에서 더욱이나 경제적 빈곤과 연결된 시간빈곤이라는 상충관계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의 인구 및 사회구조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저성장이라는 특성을 안기게 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대학생이 스스로라도 성취감을 느낄 만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소소하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시간을 세분화하여 수행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EBS 뉴스, 2022-03-21).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갓생’ 문화라고 한다. ‘갓생’을 살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할 많은 과업들로 인해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살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현재의 시간을 스스로가 ‘갓생’ 문화로 녹여내어 시간에 대한 주체적 실천 의지를 지니고자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대학생들은 시간의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현재를 즐기고, 성취의 뿌듯함도 느끼며 시간을 즐기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현대의 대학생들이 시간을 단순히 현재로 인식하는 것에

서 나아가, 현재 본인이 놓인 상황에서 현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소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갓생문화를 살아가고자 노력하기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지원해 주어야 할 대학교육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접근이나 미래준비를 위한 설계 등 그들의 시간 관리를 리드해주거나 컨설팅해 주는 접근 외에도 이미 충분히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음을 격려해 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과 지원도 필요함을 드러낸다. 이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현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넘어, 이를 통해 현재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문화를 읽는 눈을 길러주고, 이에 바탕하여 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재까지의 대학생의 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대학생의 시간 관리(김정섭, 2022; 안이경 등, 2020; 조성진, 2014; 조혜리 등, 2022)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져 옴으로써 대학생의 시간을 단순히 미래 준비의 차원으로 인식한 것과 다른 접근이다. 즉 본 연구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 혹은 대학생에게 의미화된 시간의 인식을 물음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되 시간의 지속 속에 있는 그들이 자신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대하고 있는가를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시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작 대학생들에게 시간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거나, 그들이 시간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돌아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의 대학생들이 놓인 상황과 그에 대한 대학생들의 삶에 접근하는 자세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간이 붙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흘러가는 과정에서 기억의 총체가 나를 이루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채워나가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나타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놓인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바탕하여 건강한 시간관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시간을 존재와의 관계 속에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오며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객관적으로 형성하는 시기를 넘어 대학교육에서의 진로 고민을 통해 통합적으로 자기이해를 도모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대학생은 객관화된 자기이해를 위해 이전의 과거 경험과 이후의 진로 고민이라는 미래의 고민까지를 포함하여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계획하고 있는 시점임에 따라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생임에 따라 그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대학생인 지금 시점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적 판단에 의해 현재를 계획적으로 잘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결과로 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이 시간에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모두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는 대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긍정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음을 숙고하게 한다. 안주현과 양수진(2022)에 따르면, 개인이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태도인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한 시간만을 중시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균형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이끄는 이상적인 상태가 됨으로써 행복과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삶의 의미가 높다고 하였다(Webster, 2011; Webster, Vowinckel, Ma, 2021; Zimbardo, Boyd, 1998, 2008). 이렇게 볼 때, 본 연구 결과 현대의 대학생들도 시간에 대한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편향되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시간관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곧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순간으로서의

‘시간’이자 자신을 구성하여 현재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시간들은 붙잡을 수 없지만 변화를 통해 인식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자신을 구성하듯,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데 따라 미래의 자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지를 남기기도 함으로써 시간과 존재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시간과 존재를 연결하여 인식하는 시간관은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칸트, 훗설, 하이데거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각의 양태로서의 시간 혹은 내적 자아의 통일성의 조건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시간관에(양미경, 1999)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에 바탕하여, 존재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체험적 시간에 근거한 건강한 시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학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학생의 시간 관리 및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 관점에서의 시간 관리가 아니라 개별 주체에게 적합한 시간관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대학생들이 건강한 시간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을 때의 기준은 과거-현재-미래에 치우치지 않은 시간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상대적 빈곤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건강하지 못한 시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들이 시간을 인식함에 있어 절대적 시간이 아닌 체험적 시간을 논하고 있고 시간의 총체와 존재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은, 시간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상대적 평가보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나아가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미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대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의 건강한 시간관을 형성해 주기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으로서는 타자와의 상대적 비교보다, 자신의 지속될 삶과 시간을 통찰하는 자신만의 건강한 시간관을 꾸릴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건강한 시간관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에 나

아가 개별 주체를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써의 건강한 시간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학교육의 접근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연결하여 세 번째 논의점은, 본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들이 시간의 흐름이 빠르고 붙잡고 싶다고 인식하며 미래의 준비를 위해 채워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학생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대학 생활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질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대학교육의 방향을 숙고하게 한다.

본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조성진(2014)은 대학생 시절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생 전반에 걸친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생활과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때라고 하였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무언가에 쫓기며 취업준비에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문제제기하였다. 그리고 교양과목에서 자신감 회복, 개인의 인생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부여, 시간 관리를 통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진로탐색과 취업준비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찾고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한 학생의 시간 관리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성진의 연구(2014) 이후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생에게 학습컨설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리의 내용이 포함되는 정도의 접근(전보라, 2019; 조순오, 2022)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래 준비 혹은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시간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대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학습이나 미래준비를 도울 수 있는 시간 관리 전략을 안내해주는 것도 대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시간의 개념 중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둔 접근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논의점에서 전술한 바,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현대의 대학생들은 건강한 시간관을 지니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의 대학생들은 ‘현재’라는 순간을 느끼며 즐기는 것을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자 ‘자신’을 느끼는 순간으로서 의미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미래 준비 못지않게 현재의 순간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련하여 양미경(1999)은 교육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발달과 변화에 주목하고, 시간 경험 그 자체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문제를 교육학적으로 탐색해봄으로써 개인의 의식의 흐름과 달리 토막난 시간, 억지로 붙여진 지리한 시간으로 학교의 시간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실제로 체험하는 생활 세계 혹은 정신세계와 연결된 교육에서의 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본 연구에서 현대의 대학생들이 미래 준비를 위해 채워나가야 할 시간으로 현재의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미래 직업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궁극적 방향과 구성을 짚어보게 한다. 대학교육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직업 준비교육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목적일 수는 없다. 대학도 궁극적으로는 ‘교육’ 기관으로써 한 개인이 실제로 체험하는 생활세계이자, 한 개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주는 방향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다만, 대학교육은 한 개인이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접근 중의 하나로 원하는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도 직업교육과 관련한 시간으로 구성하는 것 외에도 ‘개인’의 내면과 신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의 구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현재의 대학교육에서는 교양교육이나 학생 관련 센터에서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공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경험들의 총체로 한 학생의 건강한 삶과 시간을 구성하는 것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제공할

때, 직업준비에 대한 과정뿐 아니라 대학교육에서 체험하는 시간 전체를 조망하며 개인에게 맞춰진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에서라도 직업준비를 위한 것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을 체험함으로써 내적 소양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생활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포토보이스 방식으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토대한 대학교육 생활 구성을 재속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수업 시간 내에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연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후 자발적 연구참여자에게 한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 수행에서 '발표' 단계 실현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연구자료로 제출하면 된다는 편이성 등으로 인해 포토보이스 연구 실현을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모집인원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학에 속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참여 동의를 구했던 강좌가 교양과목임에 따라 전공과 학년, 성별 등이 고루 분포가 되기는 하였지만, 타 지역 혹은 여러 대학의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다수의 대학생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었지만, 한 학생의 생각을 심도 깊게 수차례 물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다. 학생당 시간에 대한 포토보이스를 여러 번 실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면담을 이어 갔다면,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이 지닌 참여적 실행연구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어, 현실의 개선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심층면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연구참여자들 각각이 처한 맥락을 파악하여 각 주체의 의식과 대상의 상관작용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되는 심층적인 개념화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여러 회기에 걸쳐 시간에 대한 포토보이스를 묻고 심층면담도 진행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포토보이스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대학생들의 현재에 바탕하여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특정 발달단계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기 혹은 중년 성인 등의 다른 시기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것과 비교를 통해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대학생이라는 특정 시기에 인식하는 시간의 의미의 차이성과 그 시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연구 결과로써 또 다른 의미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시기와의 비교를 통한 대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해석하지 못한 부분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으로써 청소년기나 중년 성인기와의 비교 속에 시간의 의미를 묻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미래 준비를 포함하여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이 내·외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으로 구성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시간. <https://stdict.korean.go.kr>에서 2022년 11월 29일 인출
- 권오경 (2020). 포토보이스를 통해 본 반려견 동반 운동 참여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59(1), 223-240. <https://doi.org/10.23949/kjpe.2020.1.59.1.17>
- 김다영, 김정섭, 박윤희 (2023). 대학생의 미래시간관과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문화와 융합*, 45(5), 667-678. <https://doi.org/10.33645/cnc.2023.05.45.05.667>
- 김선영 (2021). 동서의 시간 개념 이해와 수목 실기수업에서의 적용 가능성 연구: 도가의 순환·변화의 시간관과 들뢰즈의 차이·반복의 시간관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80, 17-34. <https://doi.org/10.25297/AER.2021.80.17>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외숙, 박은정 (2015). 대학생의 시간전망이 시간관리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9(4), 141-161.
- 김정섭 (2022). 대학생의 미래시간관과 학생참여의 관계에서 학업회복력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36(2), 109-127. <https://doi.org/10.17286/KJEP.2022.36.2.01>
- 김정주, 김병만, 정수정 (2020).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과 의미. *아동과 권리*, 24(3), 353-380. <https://doi.org/10.21459/kccr.2020.24.3.353>
- 노혜진 (2017).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월간 복지동향*, 225, 5-13.
- 문창욱 (2005). 존재와 시간: 베르그송,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연구*, 19, 85-110.
- 사진출처 (2021. 11. 11). 향 주 풍경.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vpZ9X5If6ag>에서 2021년 11월 11일 인출
- 서경현 (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7.
- 심경보, 광석원 (2019). 대학생들의 시간 사용과 삶의 질의 관계: 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9(3), 31-39. <https://doi.org/10.18598/kcbot.2019.9.3.04>
- 심정미, 김정섭 (2020). 대학생의 미래지향시간관, 성장 마인드셋, 자기통제 및 학업지연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38(1), 235-256. <https://doi.org/10.22327/kei.2020.38.1.235>
- 안이경, 김상규, 김우리, 김민규 (2020). 대학생의 시간관리 행동과 진로준비행동, 취업소진의 관계. *교육문화연구*, 26(2), 271-285. <https://doi.org/10.24159/joec.2020.26.6.271>
- 안주현, 양수진 (2022). 상실 경험 중년의 균형적 시간관, 의미재구성, 역경후 성장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117-144.
- 양미경 (1999). 교육과 시간: 시간의 의미에 대한 교육적 이해. *교육과정연구*, 17(1), 93-114.
- 월간인물 (2015. 9. 22). 대학생 56%, “안바쁘면 너무 불안해”...타임푸어 지수-불안감 비례. http://monthypeople.com/news_view.jsp?ncd=1962에서 2021년 11월 10일 인출
- 윤정, 김정섭 (2017). 대학생의 시간압박감, 자유재량시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31(3), 389-408. <https://doi.org/10.17286/KJEP.2017.31.3.02>
- 이경희 (2011). 사진에서 시간의 의미. 패러다임 ‘결정적 순간’의 사진미학을 넘어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202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8(4), 93-114. <https://doi.org/10.15284/kjhd.2021.28.4.93>
- 이채림 (2019).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한 공감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엽, 박영주 (2022).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및 시간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4), 285-295. <https://doi.org/10.21184/jkela.2022.6.16.4.285>
- 임정아, 진영선 (2017).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질적연구방법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활용. *청소년문화포럼*, 52, 133-162. <https://doi.org/10.17854/ffyc.2017.10.52.133>
- 전보라 (2019). 학습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습컨설팅이 대학생의 시간관리능력 및 시간관에 미치는 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127-136.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5.013>
- 전호근 (2015). 장자강의: 혼돈의 시대에 장자를 읽다. 경기: 동녘.
- 정은교, 안도희 (2019). 한국판 대학생의 미래지향시간관 척도(K-FTPS)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3(1), 101-124. <https://doi.org/10.17286/KJEP.2019.33.1.05>
- 조성진 (2014). 시간관리교육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시간관리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8(6), 755-781.
- 조순오 (2022). 온라인 학습코칭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시간 관리 행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리, 광진우, 홍아정 (2022). 대학생의 미래지향시간관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30(6), 203-231. <https://doi.org/10.18230/tjye.2022.30.6.203>
- 최승현 (2019). 들뢰즈의 시간론과 죽음교육의 의미. *교육학연구*, 57(2), 1-27. <https://doi.org/10.30916/KERA.57.2.1>

- 함영애 (2018). 대학생의 시간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BS뉴스 (2022. 3. 21). '열풍타'에 '갓생'까지...Z세대 자기계발 '붐'.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194114/N>에서 2023년 6월 29일 인출
- Amanda, O. (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김동렬 (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17)
- Bergson, H. (1993). 사유와 운동. 이광래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본 발간일, 1955)
- Davies, P. (1997). 시간의 패러독스. 김동광 (역). 서울: 두산동아. (원본 발간일, 1995)
- Dumbrill, G. C. (2009). Your policies, our children: Messages from refugee parents to child welfare workers and policy makers. *Child Welfare*, 88(3), 145-168.
- Latz, A. O. (2018).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참여적 행동연구. 김동렬 (역). 서울: 학지사. (원본 발간일, 2018)
- Nhât Hanh, T. (2015). 틱낫한의 평화. 김동섭 (역). 서울: 인빅투스. (원본 발간일, 1992)
- Webster, J. D. (2011). A new measure of time perspective: Initial psychometric findings for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scale (BTP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3(2), 111-118. <https://doi.org/10.1037/a0022801>
- Webster, J. D., Vowinckel, J., & Ma, X. (2021). The meaning of temporal balance: Does meaning in lif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balanced time perspective and mental health. *Europe's Journal of Psychoiogy*, 17(1), 119-133. <https://doi.org/10.5964/ejop.2415>
- Zimbardo, P. G., & Boyd, J. N. (1998).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 Zimbardo, P. G., & Boyd, J. N.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NY: Atria Books.